

내가 만나는 들꽃



글. 사진 박지혜

책 소개

평소 들꽃을 좋아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도 좋지만, 일상 속에 스며들어있는 작지만 강한 들꽃을 좋아했습니다. 들꽃은 위로를 전달해줬고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때로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천간디학교 3학년 교육과정인 논문으로 저는 '내가 만나는 들꽃, 사진에세이집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사진을 찍었고, 글을 썼으며 스스로 편집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계획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3월에서 8월까지 만난 들꽃을 실었습니다. 3, 4월에는 집 근처, 6월에는 제주도, 그 외 시간에는 학교의 꽃들을 담았습니다. 월별로 챕터를 나눴고 총 열두 가지 들꽃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들꽃’에 대해 알 수 있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책소개 2

3월에 만난 꽃

꽃마리..... 9

4월에 만난 꽃

제비꽃..... 17

할미꽃..... 23

5월에 만난 꽃

하늘매발톱..... 33

금낭화..... 41

붓꽃..... 47

6월 제주도에서 만난 꽃

제주양지꽃.....	59
갯까치수염.....	69
말뚝비름.....	77
설앵초.....	83

7월에 만난 꽃

봉숭아.....	93
----------	----

8월에 만난 꽃

벌개미취.....	101
-----------	-----



3월에 만난
꽃



꽃마리



꽃마리



꽃마리

개화시기: 3월~ 4월

꽃말: 나를 잊지말아요

2020. 05. 14.

꽃마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다양한 꽃을 만났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는 게 넓어졌다. 그래서 꽃마리 말고도 좋아하는 꽃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나는 꽃마리를 가장 좋아한다.

내가 꽃마리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지만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소



2020. 4. 16.

한 느낌이 난다. 「들꽃 편지」라는 책 84쪽을 보면 냉이꽃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화려하고 큰 꽃만 꽃이라 여겼던 내가, 아주 작고 소박한 꽃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삶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화려한 것은 화려한 대로, 소박한 것은 소박한 대로 꽃은 저마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잘 정리해준 듯한 글이었다. 공감되는 말을 보고 나니 자꾸만 기억에 남았다. 이런 꽃마리를 보며 느낀 것들은 내가 들꽃을 주제로 한 이유와도 관련 있다.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들꽃이란 의도적으로 파종 또는 재배하지 않은 의미의 야생에서 자라는 꽃이라고 쓰여있다. ‘남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강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 찍을 때 어려웠던 꽃들이 있었는데 이 꽃이 그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름이 2mm의 새끼손톱만큼 아주 작은 꽃이다. 초점이 잘 안 잡혀서 사진으로 담아내는 게 어려웠다.

'꽃마리'라는 이름은 어린 고사리순처럼 말린 꽃차례¹가 서서히 풀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원래 '꽃말이'였는데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며 꽃마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 꽃따지, 갓냉이 라는 이름도 있다.



2020. 03. 22.

1. 꽃대에 달린 꽃의 배열, 또는 꽃이 피는 모양이다. 화서라고도 하며 크게 단꽃차례와 복꽃차례로 나눈다.

봄맞이꽃을 보려고 공원에 갔다가 꽃마리와 정말 닮은 꽃을 본 적이 있다. 정말 닮았지만 미세하게 모양이 달랐고 파란색을 가진 꽃마리와 다르게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었다.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꽃받이라는 꽃이었다. 이름이 비슷하듯이 꽃과 잎도 닮았다. 같은 지치과인 식물이다. 처음에 꽃받이라는 걸 알고 봤을 때 감격스러웠었다. 나는 세상에 꽃받이라는 꽃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지만, 꽃마리와 다름을 나 스스로 찾아냈다는 것에 감격스러운 감정이 들었다. 봄맞이꽃이 안 보여서 고개를 숙이고 땅 가까이 살펴보았을 뿐인데 다른 꽃들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문득 ‘꽃받이라는 꽃을 내가 처음 알았을 뿐이지 이 꽃은 어제도 오늘도 묵묵히 이 자리에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놓치지 않고 찍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꽃마리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 같아서 괜히 나 자신이 대견했다.



꽃받이 2020. 04. 18.



꽃마리 2020. 04. 16.



4월에 만난
꽃



제비꽃



제비꽃



제비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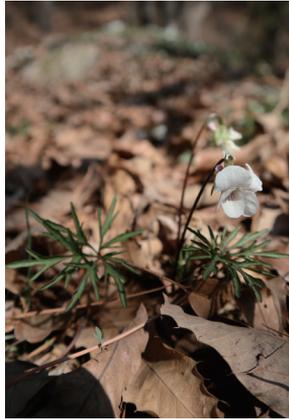
개화시기: 4월~5월

꽃말: 순진한 사랑, 나를 생각해주오

2020. 3. 22.

'제비꽃' 하면 진한 보라색의 제비꽃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제비꽃은 2020년 1년동안 논문을 하면서 꼭 찍고 싶은 꽃 중 하나였다. 꼭 찍고 싶은 꽃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다 생각해보면 대부분 보라색을 가진 꽃들이었다. 나는 보라색이 좋다. 보라색은 표현하기 힘든 색을 가진 거 같다. 보라색이란 어떤 느

낚을 주는 색일까 한참을 바라보면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지만
 자꾸 해석하려 하지 않으면 보라색은 영롱하고 자신만의 멋이
 있는 색으로 느껴진다. 제비꽃을 꼭 찍고 싶어서 찾으러 다녔
 는데 막상 만났을 땐 내 머릿속에 그려지던 제비꽃 말고도 많
 았다. 제비꽃은 종류가 정말 많다. 보라색, 흰색, 하늘색, 노란
 색... 다양함에서 새로운 매력이 느껴졌다. 나는 일년 동안 제비
 꽃, 남산제비꽃, 흰 제비꽃 등 5종 정도 만났다. 생각보다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다섯 종류의
 제비꽃을 만나보니 느낀 게 있
 었다. 겉보기엔 다 제비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다른 제비
 꽃이란 사실이다. 그 다양한 제
 비꽃 종류 중에 남산 제비꽃이라
 는 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4
 월에 할미꽃을 보기 위해 계양산
 에 갔다가 남산제비꽃을 만났다.
 나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 냄새는 우리



남산제비꽃
 개화시기: 4월~ 6월
 2020. 4. 3.

가 잘 알고 있는 아까시나무 꽃냄새 같으면서도 조금 더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났다. 그래서 더욱 까먹지 않고 기억한다. 까먹지 않고 특징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이름 특이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다. 왜 이름이 남산제비꽃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남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남산제비꽃이라 지어졌다 한다. 처음 발견된 장소는 남산이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는데 제비꽃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어릴 때는 무슨 꽃인지도 몰랐지만 예쁘다는 건 알고 있었나 보다.



2020. 03. 23.

제비꽃은 4~5월에 피는 꽃이다. 꽃말은 '순진한 사랑, 나를 생각해 주오'라는데 처음 알았을 때는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제비가 올 때쯤 피어 제비꽃이라는데 온다는 건 다시 간다는 거 기도 하니깐 나를 생각해 주오라는 꽃말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2020. 04. 16.



2020. 06. 08.
제주도 한라산



할미꽃



할미꽃

할미꽃은 옛날부터 알고 좋아하는 꽃이었다. 개화 시기가 4월~5월인데 내 기억 속에는 겨울 산에서 내려오다 보였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할미꽃의 하얀 털이 눈 속에서 피어난 꽃 같았다.



할미꽃

개화시기: 4월~5월

꽃말: 충성, 슬픈기억

2020. 04. 03.

할미꽃에는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잎이 있다. 대부분 꽃받침은 녹색이지만 할미꽃의 꽃받침은 색소를 지녀 꽃잎으로 착각할 수 있다. 나는 자주색 꽃 받침잎이 강하고 진-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다. 색이 주는 느낌은 새로워서 좋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뿐이다. 그러나 대부분 곤충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들레를 보면 노란색이다. 하지만 꿀벌에게는 분홍빛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한다. 곤충의 눈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 같이 보이는 꽃들도 있다. 같은 꽃이라도 다른 색이라면 그 느낌은 다를 것 같다. 곤충들의 눈으로 보는



2020. 04. 06.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게 된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서' 좋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가루 물감에 달걀노른자를 넣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점성이 있

는 물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루 내서 노른자에 섞는다면 천연물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해보았다. 자연물을 가루로 만드니 고약한 풀냄새가 나고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그대로가 좋다는 걸 배웠다.



2020. 04. 03.

4월 계양산 근처 무덤가에서 만났다. 이름이 할미꽃인 이유는 주로 무덤가에서 발견되어 할미꽃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양지 바른 무덤가에 많이 피어있다. 오랜만에 만난 할미꽃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신나서 사진을 찍던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리고 며칠 뒤 수목원에서도 만났다. 할미꽃이 곁에 털이 있어서 색이 잘 안 보였는데 살짝 들춰보니 노란색 수술과 그사이 갈색의 암술이 보였다. 종종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할미꽃은 허리가 굽어 있다. 그래서 대충 봐서는 꽃 모양

을 알 수 없었는데 조금만 관찰해도 겉으로만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미꽃은 백두옹(白頭翁)이라고도 불린다. 암술대가 하얀 깃 모양으로 남게 되는데 이 모습이 할머니의 흰머리를 닮아 백발의 노인을 뜻한다.



2020. 04. 06.

미나리아재빗과의 꽃이다. 미나리아재빗과는 35속 1500종이 있지만, 한국에는 21속 106종이 자라고 있다. 대부분 한해살이풀이거나 여러해살이풀이지만 드물게 관목이 있고 땅을 기는 덩굴성 식물도 있다. 잎이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흔히 갈라진다. 꽃받침 조각은 3개 이상이지만 대부분 5개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흔히 꽃잎처럼 생겼다. 꽃잎도 3개 이상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퇴화하여 없는 예도 있다. 닭지 앵아도 같은 과인 식물들끼리 공통점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내가 만난 꽃 중 하늘매발톱도 미나리아재빗과이다. 생각해보니 매발톱꽃도 꽃잎처럼 생긴 꽃받침잎이 있다. 꽃받침잎은 5장 꽃잎처럼 보이며 갈색 또는 자주색인데 하늘매발톱은 짙은 하늘색, 보라색이다. 꽃잎은 5장에 노란색이다. 그런 매발톱꽃들과 다르게 할미꽃은 꽃잎이 없다. 할미꽃처럼 꽃의 구조에서 일부가 없는 꽃을 안 갖춘꽃이라 하고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을 모두 갖춘 꽃을 갖춘꽃이라고 한다.



2020. 04. 03.

4월에 본 꽃을 8월이 되어 글을 쓰니 다시 겨울 산에서 할미꽃을 찾아다니는 내 모습이 생각난다. 할미꽃을 보면 자꾸만 추운 겨울이 떠오른다.



2020. 04. 03.



2020. 04. 06.



5월에 만난
꽃



하늘매발톱



하늘매발톱(매발톱꽃)

하늘매발톱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된 꽃이지만 정말 좋아한다. 처음 만난 날이 인상적이었다.



2020. 04. 16.

우리 집 뒤 주택가에서 처음 만났다. 살면서 처음 본 걸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친 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의 꽃은 처음 봤다. 생김새가 색달랐고, 아주 섬세하며 싱싱했다. 꼭 손대면 안 되는 예술작품을 보는 기분이어서 꽃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다. 하늘매발톱은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흥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가 풍겼다. 집으로 돌아와 하늘매발톱에 대해 알아보려고 도감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하늘매발톱은 높은 고산지대에 살아 '하늘'매발톱이었는데 왜 주택가에서 살고 있었을까? 오랫동안 궁금했었다. 이후 책을 찾아보니 워낙 잘 자라는 꽃이라 일찍이 재배에 성공해 요즘은 시장이나 화단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때 만난 주택가에 있던 하늘매발톱은 누군가 심은 거다.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어 좋았지만 힘들게 꽃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신비로움이 사라진 거 같아 아쉽다. 자연은 그 자체 그대로 일 때가 아름다운 건데 말이다. 자꾸만 인간에게 맞추려고 하면 자연이 훼손됨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가는 거 같다. 그래서 나는 야생화가 좋다. 그 자체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



하늘매발톱꽃
 개화시기: 5월~6월
 꽃말: 행복, 승리의맹세
 2020. 05. 14.



2020. 05. 05.

처음에는 4월, 집 근처에서 만났지만 5월에는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집 뒤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뒤 많은 생각을 안고 학교에 들어갔다. 그

런데 학교 돌계단 옆에도 있고, 텃밭 가는 길에도 있었다. 심지어는 법성사부터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관심을 두고 보니깐 근처 어디에서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무척 감명 깊었다.

학교에서 하늘매발톱을 찍은 날 점심시간에 카메라만 챙겨서 급하게 올라갔다 왔다. 저녁을 먹고 올라가면 해가 지기 때문에 쨍쨍한 점심시간을 쪼개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힘들기도 하고 늦을까 봐 불안하기도 하지만 잠시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왕복 40분 기숙사를 다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지만 꽃을 보고 나서부터는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 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행복

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5월 21일에는 꽃 사진을 찍고 있는데 꽃이 아직 다 피지 않은 게 있길래 신기해서 바로 찍어두었다. 꼭 색종이로 접어둔 거 같다. 하늘매발톱의 또



2020. 05. 21.

다른 모습이었다. 항상 꽃은 활짝 핀 후에야 알아보니깐 만날 수 있는데 피기 작전을 만나니 고귀한 장면이었다.

9월, 이제는 그 자리에 일만 남은 하늘매발톱을 보고 하늘매발톱임을 알아본다. 내년이 오면 그 잎 사이에서 다시 꽃이 필 것이 분명 하니깐.



2020. 09. 09.

근데 이름이 왜 매발톱꽃일까?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꿀주머니가 매의 움켜진 발톱 같다고 매발톱꽃이라고 한다. 꽃말은 행복, 승리의 맹세다. 매발톱꽃의 이름 뜻을 알고 나면 매를 떠오르게 한다. 매는 사냥의 명수인 만큼 승리의 맹세라는 꽃말이 어울렸다. 또 행복이라는 꽃말이 어울린 이유는 나는 하늘매발톱을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2020. 05. 21.



2020. 05. 21.



2020. 04. 16.



금낭화



금낭화

꽃은 활기와 따뜻함을 품고 있다. 그렇지 않은 꽃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금낭화는 누구보다 활기차며 따뜻하다. 그런데 개성까지 뚜렷해 언제나 부러운 존재다.



금낭화

개화시기: 5월~6월

꽃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2020. 05. 07.

처음 본 건 어릴 때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이집에서 놀러 갔다 만났으니깐 5살에서 7살쯤인 것 같다. 어린이집에서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어떤 분홍색을 가진 하트모양 꽃이 바위 사이에 살고 있었다. 정말 예쁘고 밝았다. 자체에서 빛이 나는 꽃이었다. 이름은 몰라도 인상적인 특징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다.

금낭화는 5월에서 6월에 핀다. 2020년 유난히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바로 만날 수 있었다. 학교에서 기숙사로 올라가



2020. 05. 07

는 길에서 만났다. 정확하게는 퇴골교와 양희창 선생님 집 사이에서 만났다. 기숙사를 올라가는데 딱 눈에 보였다. 설레어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전교생이 다 같이 기숙사를 올라가야 해서 사진 찍기가 어려웠다. 꽃이 질까 봐 걱정됐다. 피는 시기 말고 피어있는 기간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다 같이 올라가고 그때 외 시간에는 학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막막했다. 그래도 다행히 부탁해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올라가서 찍고 왔다. 꽃이 질까 걱정했는데 무빙을 다녀온 7월에도 한두 개는 있었다. 5월인데 벌써 짹짹한 날씨에 생기 넘치는 금낭화가 아름다웠다.



5월의 금낭화



7월의 금낭화

금낭화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멀게 알고 있었다. 이름 또한 아주 익숙하지만 생소했다. 생각해 보니 왜 금낭화일까? 찾아보니 꽃의 모양에서 따온 것으로 여인들이 차고 다니던 비단 주머니를 금낭이라 하는데 금낭화가 금낭을 닮아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우리말로는 며느리주머니라고 한다고 한다. 자료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금낭화 열매를 사진으로 봤다. 금낭화가 내 근처에 있는 걸 알았음에도 열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꽃이 피면 식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

면 알아보기 어려워서 본 적이 없는 거 같다. 이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았으니깐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2020. 05. 07

꽃에서 독한향기가 난다고 한다. 또 금낭화의 씨를 맨손으로 받게 되면 노랗게 물이 든다고 한다. 줄기에서 나온 액에서도 노란 물이 든다.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꽃이 진 후에야 알았다. 꽃은 핏이 있으면 짐도 있으니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그만큼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존재다. 그렇게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 다시 피어 만나면 처음 만난 것처럼 아주 반갑게, 인사해야겠다. 내 곁에 있음을 당연시하지 않으려 노력할 거다.



붓꽃



붓꽃 (등심붓꽃)

붓을 닮아 붓꽃이라는데, 붓의 모습을 닮은 봉오리 상태를 놓치면 그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붓꽃이라는 꽃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다.



붓꽃

개화시기: 5월~6월

꽃말: 기쁜소식

2020. 05. 27.

점심시간에 꽃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챙겨 기숙사로 올라갔다. 법성사 들어가기 전, 정말 다양한 꽃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붓꽃을 발견했고 운 좋게 봉오리 모양이 붓을 닮아 붓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슨 심술인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붓을 닦긴 했지만, 꽃의 특징을 더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면 봉오리보다 더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꽃 위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니 어지러운 착시효과도 경험할 수 있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 느낌이 들었다. 정말 여러모로 매력 있고 볼수록 알고 싶은 꽃이다.

이런 느낌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다. 반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1888년부터 붓꽃(아이리스)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현대에 와서 반 고흐의 대표작으로 인



2020. 05. 27.

정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그가 붓꽃이 불안한 영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는 형태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써놓았다. 반 고흐도 붓꽃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것일까? 아니

면 또 다른 의미가 숨어있을까? 반 고흐의 그림 중 보라색 붓꽃 사이 흰 붓꽃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다. 나는 그걸 보고 흰 붓꽃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 붓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든다. 뭔가 부드럽고 어두우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붓꽃의 서양 이름은 아이리스다. 아이리스는 무지개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꽃말도 ‘기쁜 소식’이다.



2020. 05. 27.

2020년 6월에 3학년 무빙
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 거기
서 붓꽃과인 ‘등심붓꽃’을 만
났다. 처음에는 계곡에서 만났
다. 그때까지는 이름도 모르
고 사진만 찍었었다. 비자림로
에서 만난 약초 선생님께서 이
름을 알려주셨다. 처음 들었을
때는 특이하고 유별난 이
름 같았다. 이름이 등심
붓꽃인 이유는 꽃의 중심
부분이 등황색이라는 뜻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에 많이 살고 있어



등심붓꽃

개화시기: 5월~6월

2020. 06. 09.

서 무빙을 하는 동안 함께 여행하는 것 같았다. 등심붓꽃은 일
일화다. 일일화는 하루만 피었다 지는 꽃을 이야기한다. 하루
살이처럼 하루만 피고 지는 일일화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자
신의 몫을 다하는 거 같다. 국어사전에는 ‘날마다 피어나는 꽃’
이라고 표기한다. 전체를 본다면 하루만 피는 게 아니라 날마



다 순서대로 핀다고 볼 수 있겠다. 처음 들었을 때는 하루만 피는 꽃이라 하여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하루만 피는 것이지 하루만 사는 건 아니다. 등심붓꽃은 여러해살이풀이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한 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소한 부분에서 좋은 점을 찾아낸다면 좋고 나쁨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게 좋다.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05. 27.

내가 만난 붓꽃과의 꽃



붓꽃

개화시기: 5월~ 6월

2020. 05. 27.



등심붓꽃

개화시기: 5월~6월

2020. 06. 09.



대청부채

개화시기: 7월~8월

2020. 07. 06.



범부채

개화시기: 7월~8

월

2020. 07. 06.



6월,
제주도에서
만난 꽃



제주양지꽃



제주양지꽃이 아닐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제주양지꽃을 6월 한라산에서 만났습니다. 검색해보고 여러 부분이 제주양지꽃 같다고 생각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문가평가에서 미나리아재비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사진을 찍은 계절에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다시 올라야만 가능합니다. 제주양지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의 느낌과 생각은 변함이 없어 글을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양지꽃

6월 제주도를 갔을 때, 한라산에서 제주양지꽃을 만났다. 정상에 다 왔을 때쯤 보였다. 푸른 하늘과 노란 양지꽃이 어우러지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장면이었다.



2020. 06. 08.

만났던 순간에는 뱀딸기인가? 양지꽃인가? 헷갈렸지만 그냥 닭기만 한 거 같은 어색한 향기가 느껴져서 일단 찍어왔던 거 같다. 그 이후 양지꽃 종류의 하나인 제주양지꽃이라는 걸 알았을 땐 뿌듯하고 감격스러움, 그 자체였다.



제주양지꽃
개화시기: 4월~6월
꽃말: 사랑스러움
2020. 06. 08.

제주양지꽃은 제주도의 특산식물이다. 세계적으로 제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 56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주양지꽃

이다. 한라산 해발 700m 이상에만 사는 식물이라, 정체를 알고 나서 더욱 뜻깊었다. 개인적으로 제주양지꽃을 만났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겨 으쓱했다. 동백동산에서 본 제주고사리삼도 특산식물 56종 중 하나다. 제주고사리삼은 자생지가 3~5곳으로 개체 수가 매우 적다고 한다. 동백동산에는 희귀하고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없는 생명이 살고 있어서 더욱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주고사리삼
2020. 06. 10.

제주양지꽃을 만나기 전, 4월 계양산에서 양지꽃을 만났었다. 계양산 무덤가에 할미꽃을 보러 갔다가 만났다. 한라산에서 헛갈렸던 것처럼 뱀딸기 같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뱀딸기와 양지꽃을 헛갈린다고 한다. 둘 다 4월~6월에 꽃을 피우고

비슷한 꽃과 잎, 색을 갖고 있다.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양지꽃은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모여 달리며 꽃받침이 꽃잎보다 짧다고 한다. 그런데 뱀딸기는 줄기 끝에 꽃이 한 송이씩 달리고 꽃받침이 꽃잎보다 길다.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뱀딸기는 꽃받침 외에 톱니 모양의 부화관(부꽃받침조각)이 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구분하기 훨씬 쉽다. 이름은 햇빛이 잘 드는 양지쪽에서 자란다고 양지꽃이라 한다. 제주양지꽃과 양지꽃의 차이는 제주양지꽃은 꽃잎에 윤기가 있고, 제주도에만 산다. 양지꽃과 제주양지꽃의 꽃말은 '사랑스러움'이다. 노란 꽃잎을 보고 지어줬나 보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노란 꽃잎의 사랑스러움.



양지꽃
2020. 04. 03.



뱀딸기
2020. 09. 20.



양지꽃

2020. 04. 03.

양지꽃은 장미과인데 장미과 중에는 벚꽃, 조팝나무 등의 다양한 꽃들이 있다. 장미과라고만 생각했을 땐 의문이 들었는데 벚꽃, 매화, 살구꽃, 조팝나무 등의 장미과에 속한 꽃을 들여다보니깐 장미과 꽃들의 느낌을 알 거 같다. '봄' 하면 가장 먼저 벚꽃이 떠오른다. 3월에 열심히 이 꽃들을 찍었었다. 나무 꽃이라 정식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꽃 하나하나에 추억이 스며들어있다. 벚꽃, 매화, 살구꽃을 찍으면서 구경 온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걸 봤다. 매화를 벚꽃이라 부르고 살구를 매

화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구별하는
법을 알아냈다. 다음 봄이 오면 헛갈리는 사람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다.



2020. 06. 08.



갯까치수염



갯까치수염

갯까치수염을 인터넷에 치면 가장 먼저 지식백과에 ‘갯까치수염’이라 뜬다. 갯까치수염이 표준어로 등록되어있지만 원래 이름은 갯까치수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르게는 해변진주초라고도 불리는데 입에 착 붙는 예쁜 이름이다.



갯까치수염

개화시기: 7월~8월

꽃말: 친근한 정, 그리움

2020. 06. 03.

갯까치수염에 들어가는 ‘까치’의 뜻은 말 그대로 까치를 닮아 지어진 것이고 ‘수염’은 작은 하얀색 꽃들이 반달처럼 휘어진 줄기에 붙은 모습이 사람의 수염이나 동물 꼬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그렇게 하면 까치수염꽃인데 이 꽃은 ‘갯’자가 붙어있다. 바닷가 근처에서 사는 꽃들은 ‘갯’자가 많이 붙는다고 한다. 그래서 갯까치수염은 바다 주변에 사는 까치수염인 셈이다. 바닷가 근처에 사는 꽃들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바다 염분에 강하다. 두 번째는 강한 바닷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땅 위를 기어가듯 줄기를 뻗거나 땅속으로 기는줄기를 낸다. 갯까치수염도 바위틈에서 자라고 까치수염에 비교해 작은 키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 강한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잎에 윤기가 있다는데 갯까치수염이 다 해당되니깐 신기하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의해 다른 외모를 갖고 있듯이 식물도 그렇다는 게 흥미롭다. 굉장히 살기 힘든 환경에서도 버텨내는 갯까치수염을 보고 한 번 더 식물의 위대함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근처에 살아서 ‘갯’까치수염인데 다른 지역 어디에서 또 살아갈까? 궁금했다. 울릉도에서도 산다고 한다. 바다 근처에 살아서 ‘갯’자가 붙은 거지만 진짜로 바다 주변에만 사니깐 이게 뭐라고 다시 한번 놀란다.



2020. 06. 03.

갯까치수염은 앵초과다. 같은 앵초과인 설앵초를 제주도 한라산에서 만났다. 다 다르게 생긴 꽃들도 이렇게 얽혀있다는 게 신비롭다. 꼭 사람들 이름에서의 성 같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성이 같으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있는 느낌이 든다. 가끔은 먼 가족이기도 하다. 꽃들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과인 경우가 재미있다. 앵초와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앵초과인 갯까치수염은 7월~8월에 꽃을 피운다. 그렇지만 나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6월에 봤다. 2020년 6월 4일 학교 무빙으로 갔던 핫핑크돌핀스 일정 중 비치코밍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비치코밍을 하러 갔다가 갯까치수염을 만났다. 비치코밍이란 바다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다. 하얀색의 작은 꽃이 잎 사이에 박혀있는 듯한 식물을 발견했다. 보자마자 뭔가 이

곳에서만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진을 찍었다. 내가 갯까치수염을 본 날을 기억하면 비치코밍이 생각나고 비치코밍하면 돌고래를 본 게 떠오른다. 지나가다가 돌고래가 있는 거 같다고 해서 멈췄는데 돌고래 떼가 돌아가며 뛰어 오르고 있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돌고래를 봤다. '돌고래'라고 하면 엄청 신비하고 수족관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거 같은 존재인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게 큰 감동을 줬다. 정말 멋있었고 돌고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2020. 06. 03.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범박산에서 까치수염을 만났다. 이 꽃을 보면 갯까치수염하고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꼭 뭔가를 닮았다. ‘그 닮은 게 뭤까?’ 고민했다. 그리고 까치수염에 대해 찾아보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개꼬리풀이라고 한다고 했다. 보자마자 과하게 수궁했다. 내가 닮은 걸 고민했던 게 강아지의 꼬리인 건지 아님, 아주 닮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듯이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까치수염

개화시기: 6월~8월

꽃말: 잠든별, 동심

2020. 06. 22.



2020. 06. 03.



말뚥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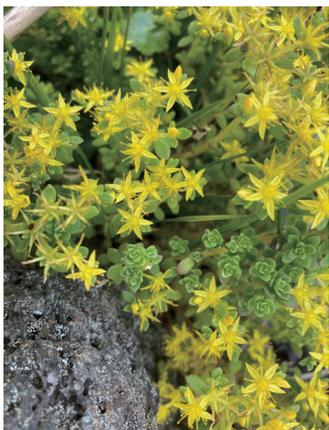


말뚥비름

제주도에서 만난 말뚥비름은 3학년 움직이는 학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였다. 이 꽃은 한국의 제주, 전남, 경남 그리고 일본 등의 지역에서 산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났나 보다. 6월~8월에 꽃이 피고 두 해를 사는 두해살이풀이다. 나는 이 꽃을 처음 만났을 때 잊지 말고 꼭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웬지 모를 좋은 기운이 느껴졌다. 사진 찍을 때 정말 어려웠던 꽃이기도 했다. 암수술이 나란히 있는 게 흐릿한 착시효과를 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자꾸만 선명하지 않게 사진이 나왔다. 자세히 보면 작고 별같이 생긴 꽃이었다.



2020. 06. 10.



말뚥비름

개화시기: 6월~ 8월

꽃말: 젊은 시절의 고뇌

2020. 06. 07.

마지막 숙소 사장님께 이 꽃에 관해 물어봤었다. 이름이 말뚥비름이러는데 어렵고 특이해서 자꾸 까먹었다. 말뚥비름의 말뚥은 하찮은 것에 붙여지는 이름인데 우리말 식물 이름에 말뚥이 들어가는 건 말뚥비름 한 종뿐이라 한다. 비름은 잎이 쇠비름을 닮아 그렇다는데 조합을 해보면 하찮고 누군가와 닮은 존재라는 게 썩 즐거운 이름은 아닌 거 같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알돌나물, 만주에서는 말통버름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돌나물과 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돌나물로 무침을 먹은 기억이 많아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 돌나물과를 다르게는 낙지다리 과라고도 한다는데 그건 아마도 돌을 둘러싸듯이 자라서 그런 것 같다.

이을락 민박 사장님은 말뚥비름의 이름을 알려주신 뒤 잡초



2020. 06. 10.

라고, 민박에 엄청 많다고 토로하셨다. 나는 처음 봤을 때 엄청 귀한 꽃인 줄 알았는데 의외에 이야기였다. 사장님이 좋지 못한 표정으로 잡초라고 이야기하시니 전에 어디선가 본 이야기가 생각났다. “세상에 잡초라는 건 없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만든 이름일 뿐, 사실 그들도 이름이 있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으며 아름답다.” 그들도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다. 사장님의 하소연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사장님만의 고충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

때 사장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사회에서도 정말 그런 일이 많고 어느 공간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 같다. 그리고 「들꽃, 나도 너처럼 피어나고 싶다」에서 김민수 목사님은 “잡초라고 해서 지나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잡초라는 존재에게 대하는 모습은 가끔 잘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웃음 같다. 꽃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사람이 보이는 거 같다.

2020. 06. 07.





설앵초



설앵초



2020. 06. 08.

설앵초는 한라산 해발 1700m에서 정상(해발 1950m) 그 사이에서 자란다고 한다. 정말로 산속을 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진달래밭(1500m)을 지나 풍경이 탁 트인 능선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길 옆으로 눈에 확 띄는 색을 가진 꽃이 보였다. 꽃다발처럼 모여 있었고 강렬한 색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특이한 꽃잎을 갖고 있어 신기했다. 현실적이지 않게 예쁜 사람을 보고 인형 같다

고 하듯이 그런 느낌의 그림 같은 꽃이었다.



설앵초

개화시기: 5월~6월

꽃말: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 행운의 열

쇠

2020. 06. 08.

설앵초(雪櫻草)는 한자로 雪 눈 설 櫻 앵두 앵초 풀 초이다. 앵초는 꽃 모양이 앵두꽃과 비슷해서 붙여졌고, 잎 뒷면에 설 황색 가루처럼 보이는 것이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나는 눈이 올 때 피어서 설앵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설앵초의 개화 시기가 5월~6월이라 ‘한라산에는 그때까지도 눈이 오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날씨를 찾아보니 한라산은 여름에도 14도로 춥긴 하지만 정말 그때까지 눈이 와서 그런 건 아니었다. 앵초, 설앵초, 큰앵초의 차이는 크다. 설앵초가 가장 작고 그다음 앵초, 큰앵초 순이다. 설앵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살기 힘든 고산지대에서 산다. 해발 1700m

이상에서만 살기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깊고 높은 산에
가야 볼 수 있다.



2020. 06. 08.

내가 제주도 한라산에 갔던 날 날씨가 정말 좋았다. 일 년에
몇 번 없다는 맑은 날씨였다. 앞으로는 이런 장관을 보기가 더
욱 힘들어질 거 같아서 뜻깊은 날이었다. 그래서 좋았지만 사
진 찍기에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다. 너무 밝아도 사진 찍기
어렵고 어두워도 마찬가지다. 꽃 크기가 작아도 찍기 힘들고
풀 사이에 숨어 있어도 그렇다. 단체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랫
동안 앉아서 구경하며 찍을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거의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한
라산은 언제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깐 아쉬우면서 그렇
기에 더 소중한 경험인 거 같다. 꽃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 어려
움이 있는데 그런 걸 피하고 딱 좋은 순간에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깐 융통성 있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설앵초의 꽃말은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 '행운의 열쇠'이다. 고산지대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비교 대상이 없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있다. 멋진 말이다. 내가 한라산을 또 간다면 그건 설앵초를 보기 위한 이유도 있을 거다. 다시 만나면 전에 만났던 장소가 추억이 되어 말이 많아질 거 같다. 그리고 정말 반가울 것 같다. 그때 사진 실력이 더 좋아져서 기가 막힌 설앵초 사진을 찍어오고 싶다.



2020. 06. 08.

국립생물자원관 발표에 따르면 서늘한 고산지대에만 사는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와 설앵초의 경우, 지구온난화가 지속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상에서 멸종될 가능성이 가장 큰 식물이라고 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이 멸종됐고 앞으로도 많은 종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설앵초를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매우 절망적으로 다가온다.



2020. 06. 08.



7월에 만난
꽃



봉숭아



봉숭아



2020. 09. 09.

나는 어릴 때 봉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래서 ‘봉숭아’ 하면 바로 그 생각부터 난다. 내 생각, 마음과는 상관없이 몸이 거부했지만 나는 봉숭아꽃이 참 좋다. 전에는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라왔었다. 내 몸이 봉숭아꽃을 거부해서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봉숭아꽃이 근처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추억이 있는 꽃이 되었다. 그

래서 그런지 나는 봉숭아꽃 생김새를 머릿속에 그려내지 못하
는데도 지나가다 봉숭아가 보이면 바로 알아보곤 했다. 안 좋
은 인연이라도 평범함을 넘으면 특별해지는 것 같다.

봉숭아

개화시기: 7월~8월

꽃말: 어린 아이같은 마음씨,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2020. 09. 09.



7월~8월에 피는 봉숭아는 흔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꽃
이다. 짓이긴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올려 물들인 후 첫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문화가 있다. 나도 친구들과 손톱에 봉숭
아 물들이기를 한 기억이 난다. 그래서 꽃말로 '어린 아이같은
마음씨'인가 보다. 다른 꽃말로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도 있

는데 꼭 알레르기가 있는 나에게 하는 말 같다.



2020. 07. 02.

봉숭아는 봉선화라는 이름도 있다. 나는 두 가지의 이름이 헷갈렸었는데 둘 다 같은 꽃을 이르는 말이다. 꽃 이름이 문화 같은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부르기 위해서 지은 이유뿐이라면 나는 봉숭아가 좋다. 옛날부터 그게 편하고 좋아서 글도 봉숭아라고 썼다. 봉선화(봉숭아)는 줄기와 가지 사이에 꽃이 피는데 우뚝하게 서 있는 모습이 봉(鳳)을 형상하므로 봉선화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鳳)은 봉황새를 뜻하고, 봉황새란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라고 한다. 몸의

생김새가 앞부분이 기러기, 뒤는 기린, 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 용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닭의 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생김새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었다.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한다. 나는 웬지 모르게 삼두매가 떠올랐다. 삼두매는 머리가 세 개에 다리가 하나인 매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상의 새로 삼두매를 그려 문에 붙이면 악귀를 쫓아낸다는 문화가 있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오색 팔지 만들기 삼두매 그리기를 했었는데, 옛날 문헌에 남아있는 상상의 새를 현실에서 떠올리기 어려웠다. 봉숭아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봉황새의 모습을 본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봉선화의 유래를 알고 나니 봉숭아 꽃이 한층 더 신비롭고 새롭게 느껴진다.



물봉숭(물봉선)

개화시기: 8월~9월

2020. 9. 25..



8월에 만난
꽃



벌개미취



별개미취

별개미취는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꽃이다. 좋아하는 꽃이 너무나 많지만 익숙해서 좋은 것과 새로워서 좋은 건 다르다. 익숙해서 좋은 꽃으로 꽃마리가 있다면 새로워서 좋은 꽃은 하늘매발톱이다. 별개미취는 내가 꽃이 된다면 되고 싶은 꽃이다.



별개미취

개화시기: 8월~9월

꽃말: 추억, 너를 잊지 않

우리

2020. 08. 25.



2020. 8. 25.

벌개미취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토종 꽃이다. 한반도 식물자원연구소라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 수많은 원예용 꽃들을 제치고 우리 꽃으로도 아름다운 도로와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 주게 되었다.” 나는 원예 꽃, 서양 꽃이라 했을 때와 들꽃, 길가에 핀 꽃, 토종 꽃이라 했을 때 받는 느낌이 다르다. 내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게 저 글 속에도 담겨있는 거 같다. 내가 편견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예 꽃을 좋아하는 건 문제

가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해 들꽃, 길가에 핀 꽃, 토종 꽃이 촌스럽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나 또한 주문을 걸듯 붙잡고 있나 보다. 하나하나의 작은 꽃들은 위대하다. 「들꽃 편지」라는 책에서 꽃을 살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했다. 그것은 들꽃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 같다. 벌개미취는 토종 꽃, 야생화라는 타이틀을 걸고도 당당하게 아름다운 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벌개미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벌개미취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벌개미취 겉모습은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야생화다.



2020. 08. 25.

벌개미취 2020. 8. 25



그런 벌개미취를 알게 된 건 직접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다. 대부분 들꽃을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만나지만, 벌개미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떤 꽃을 찍을까 인터넷에서 꽃 종류를 살펴보는데 내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은 꽃이 있었다. 당장 찍고 싶었지만, 이 꽃은 가을에 핀다고 해서 기다려야 했다. 꽃은 피는 시기가 있어 늘 피어있지 않는다. 그래서 벌개미취는 몇 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 7월, 한 송이만 피어있는 모습으로 처음 만났다.

8월, 절기상 가을이지만 한여름 같은 날씨에 벌개미취를 만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다시 가보니 벌개미취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 벌개미취는 번식력이 좋아 군락지를 이룬다고 한다. 오랜 시간 기다려 벌개미취 꽃밭을 만나니 정말

황홀했다. 진한 듯하면서도 연한 보라색 꽃이 예뻐다. 벌과 나비 등 많은 곤충이 벌개미취를 찾아와 꿀을 먹고 있었다. 이 싱그러운 벌개미취를 보는 곤충들은 무슨 감정일까.

대체로 가을에 보라색 꽃이 많이 핀다고 한다. 벌개미취 옆에 핀 도라지꽃도 마치 색종이로 접은 엉성한 공 같은 보라색 꽃이었다. 보라색 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신비로움 그 자체의 꽃이었다.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비는 분홍색이나 흰색 등 파스텔 계열을 좋아하고 벌은 노랑과 청색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을에는 벌이 주요 매개자이기 때문에 청색 계열의 보라색이 많다고 한다. 의식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생



2020. 08. 25.

각해보니깐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꽃을 찾아보면 대부분 가을에 피는 꽃이었다. 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가 좋다. 내가 좋아하는 가을을 보라색 꽃들이 장식해줘서 더욱 좋은 계절이 되는 거 같다.

벌개미취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다. 이게 무슨 우연인지 버스 문에 <들꽃>이라는 시가 있었다.

<들꽃> 이성진
이름 모를 들꽃도
잘 알려진 꽃도
꽃이라서
아름답다
너는 너대로
아름답다



2020. 08. 25.

들꽃을 보고 오는 길에 이런 시를 만나니깐 정말 반가웠다.

나는 필름카메라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꽃 사진을 일반 DSLR 카메라로 찍는다. 주변 환경에 따라 사진을 찍을 때 부족한 게 있다. 그걸 필름카메라보다는 DSLR 카메라가 더 잘 잡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저것 조절하고 연사 찍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필름카메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찍지 않았다. 벌개미취를 찍을 때는 필름카메라도 챙겨갔는데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다. 현상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필름카메라의 묘미인 거 같다. 같은 꽃이라도 보는 장소에 따라 그 느낌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고 했다. 카메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로 사진을 찍냐가 큰 차이를 준다. 누가 나한테 그랬다. 비싸든 싸든 오래됐든 최신기종이든 핸드폰 카메라이든, 어떤 카메라로도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정말 잘 찍는 거라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진을 찍는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왔는데 보라색 꽃이 보였다. 벌개미취와 비슷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벌개미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달랐다. 그래도

정확하게 동정¹을 해야 하니깐 잎도 비교해보고 구별하는 방법도 찾아봤다. 꽃봉오리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벌개미취의 꽃봉오리는 3단으로 생겼다. 반면 썩부쟁이는 동그랗게 말렸고 더 단단한 느낌을 준다. 1년 동안 꽃만 보고 다니다 보니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썩부쟁이

개화시기: 7월~ 8월

꽃말: 그리움, 기다림

2020. 9. 9.

1 동정(同定)

【명사】【~하다 → 타동사】

생물의 분류학상 소속이나 명칭을 정하는 일《종·속 따위》.

내가 만났던 꽃이 하나하나 쌓여 셀 수 없이 많아졌다. 그리고 오늘도 벌개미취를 기록했다.



벌개미취 2020. 08. 25.



별개미취 2020. 08. 25.



글, 사진, 편집 박지혜

제천간디학교 3학년

E-mail pjihae1117@naver.com

제작기간 2020년 3월 28일~11월 27일

표지글꼴 경기천년바탕

본문 글꼴 mapo 꽃섬, mapo 금빛나루

본문은 저작자에 소중한 지적 자산입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